

# “공업입국의 참된 역군 양성의 도장”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경인국도변에 자리한

柳韓工專 을 찾아서



## 企業에서 얻은 이익 社會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

“인류평화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 교훈아래 내실다져

『기업에서 얻어진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 준 사회에 환원한다.』는 설립자 정신의 이념을 구현하는 한편 현 산업구조에서 요청하는 중견기술인 육성을 위해 8년전 설립된 柳韓공업전문대학은 유지재단의 모체인 柳韓洋行의 명성을 따라 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인류평화 위해 봉사하는 자유인이 되자』는 건학목표아래 국가 백년대계의 일익을 담당하며 산업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육성함을 교육이념으로 삼고 있는 유한공업전문대학.

유한공대는 인류평화와 국가 민족을 위한 박애정신, 사회복지향상을 위한 봉사정신, 산업건설에 기여할 지식과 기술연마를 위한 직업정신의 함양을 통해 공업입국의 역군이 될 유능한 인재양성은 물론 인내와 책임과 신념을 지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참된 봉사인을 양성한다는 남다른 교육목표도 설정하고 있다.

## 7천여 중견기술인 배출, 취업은 거의 100%

### 전자·전자계산·금형설계과에 역점

유한공업전문대학은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경인국도변에 자리하고 있다.

1977년 12월23일 유한공업전문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인 1978년 3월 1일 초대이사장 김명선박사, 초대교장 孫鍾律박사가 취임하였다.

1978년 3월 1 기계과(주간 240명, 야간 240명), 기계설계과(주간 160명, 야간 160명), 전기과(주간80명, 야간80명)등 3개과 24학급 960명으로 입학식을 갖고 출발한 것이다. 이해 11월 전자과(주간 120명, 야간 40명), 공업경영과(주간 120명, 야간40명), 도안과(주간 120명, 야간40명)가 증설 됨으로써 외형적으로나마 공전의 기틀이 잡히게 됐다.

1979년 1월 1일 유한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를 받아 3월 1일 초대학장에 孫鍾律박사가 취임하고 공업전문대학으로 출발하게 되었고, 1982년 6월10일 제 2대 이사장에 조동수박사가 취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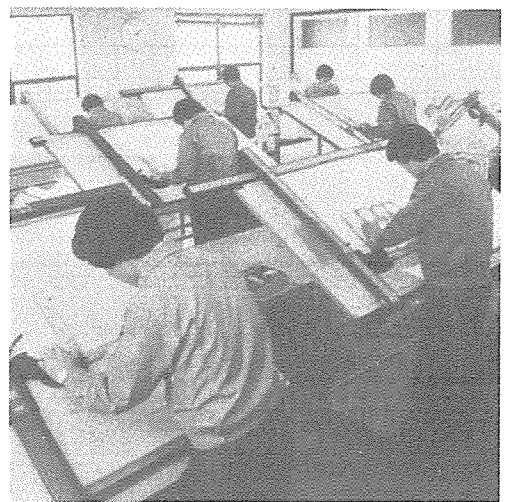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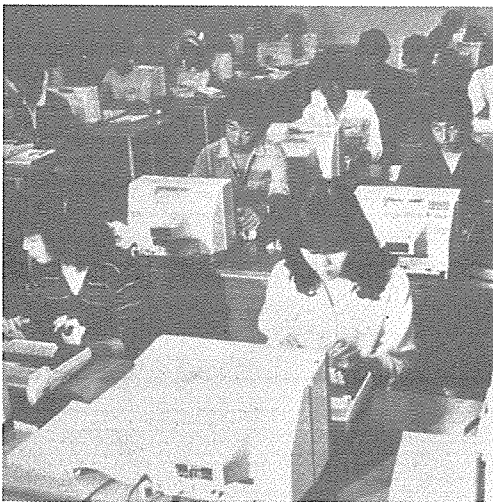
1980년 2월 제 1 회졸업생을 배출하여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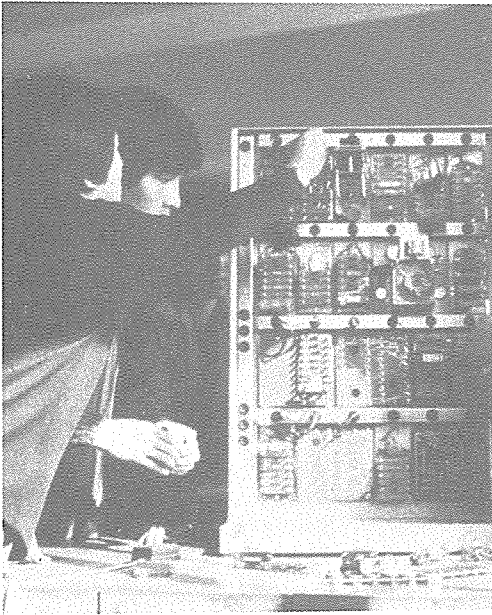
대가 요구하는 중견기술인을 사회에 내보내기 시작하여, 그동안 7천여명의 중견기술인력을 배출하였으며, 현재는 기계과, 기계설계과, 전기과, 전자과, 공업경영과, 공업디자인과, 전자계산학과, 건축설계과, 상업디자인과, 식품영양과, 금형설계과의 11개과에 3,300여명의 재학생을 가지고 있는데, 모집정원 1,656명, 졸업정원 1,440명으로 성장했다.

여학생은 전체의 약20%정도인데 주로 상업디자인과와 공업디자인과에서 남학생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는것.

졸업생의 취업상황은 다른 공전의 예와는 달리 거의 100%가 취업되고 있다고 학교당국은 자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앞으로 전자과, 전자계산과, 금형설계과의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을 통해 산업사회가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 분야의 실력있는 중견기술인을 배출할 방침이라고 한다.





## 海外研修 등으로 教授資質 향상

공업계 전문대학의 역사가 아직 짧아서 그동안의 교육성과에 대한 성패를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일반적으로 ① 교수의 자질 ② 교육시설 ③ 학생의 자질에 관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유한공업전문대학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들어 보았다.

① 교수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매년 4~5명의 교수를 해외에 파견하여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는 한편 산업체등과 협력하여 현장기술을 습득케 하고 있다는 것.

② 교육시설의 설비와 활용에 대해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다는 것. 차관등에 의하여 교육에 필요한 기본 시설은 어느정도 설비가 되었다고.

다만 활용에 따른 비용문제나 자금부담이

큰 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의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요망되기도 한다고.

③ 학생의 자질향상문제는 다른 전문대학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할 점이다. 그동안 공업계 전문대학들은 사실상 모집과정에서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학생을 확보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이들이 직업기술인으로서의 의식과 자세가 정립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등이 지적되어 왔다.

학생의 자질향상문제는 전문대학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며, 조만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부형과 산업체는 물론 사회 각계 각층에서 직업기술인에 대한 재인식과, 학생자신들이 직업기술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배경에도 불구하고 유한공업전문대학은 꾸준히 교육목표를 학생들이 직업기술인으로서의 철학을 가지고 긍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내실있는 지도를 하고 있다.

## 금지·자부심 갖는 졸업생들

이러한 교육효과는 서서히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고 係학장은 평가한다. 전국의 크고 작은 산업체에 근무중인 유한공전 출신들은 재학중 특히 견학정신의 체득을 통해 사회적 적응력이 타교보다 뛰어나다는 조사결과가 아니더라도 산업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밝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졸업생의 추수지도에서 역력히 읽을 수 있었다는 係학장의 말에서 탐방자는 이 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어렵지 않게 내다볼 수 있었다. (李元睦 記)